

2008 육계산업과 앞으로의 방향

이제 양계인의 삶이 건조하지 않기를…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기도했다. 오직 나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고통으로 물든 은행나무 잎처럼 우리들 가슴을 새까맣게 물들이고 말았다. 우리 육계인은 품질 좋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 받아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올봄에는 느닷없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과잉보도로 소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육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곡물 파동까지 이어져 사료공급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고 있을 때 원유 폭등과 환율 폭등으로 우리 육계인들의 마음은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한 해였다.

폭풍우 같은 한해가 지나가자 한미 FTA도 우리 육계 산업에 크게 나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정부와 여, 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에 희망과 용기를 가져본다.

양계협회 활성화

지난 10월 6~7일 전국양계인대회가 개최됐다. 양계업 종사자들이 속속 모여 대성황리에 마쳤다.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진 보이지 않는 힘에 큰 감동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큰 관심과 기대이며 앞으로 양계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리라는 믿음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협회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양계산업 구조 변화에 한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양계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양계인들은 양계협회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질병관리본부의 오보로 인하여 엄청난



최길영

- 경기도육계지부연합회장
- 화성육계지부장

손실을 입었다. 계산을 할 수 없는 손실 앞에 눈 뜨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을 때 양계협회는 과감하게 큰일을 해 내기도 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TV광고를 실시토록 했다. 그리하여 벌집 같은 우리업계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협회의 크나큰 힘과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우리 모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 많은 정책은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상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어본다.

아직까지 도지회나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양계인들은 협회 가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옛 속담과 같이 협회에 가입하여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양계인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로 태어날 것이며, 양계협회는 더욱 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육계 생산자의 자세

어린아이부터 손쉽게 맛있게 먹는 닭고기 생산에 사명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나날이 외식산업이 발전하고 먹는 식품도 다양할 뿐 아니라 우리 식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내가 분양 받은 병아리와 사료 품질이 안전한지도 우리 생산자가 잘 살펴야 할 시점이다. 정부 정책을 보면 HACCP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생산자가 정부 정책에 몇 농가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분양받은 병아리를 혈청역가검사를 실시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육계생산에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병아리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전문 수의사와 상담하여 육계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가 생산한 닭고기는 내 사랑하는 자식은 물론 소비자 모두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와 내가 닭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육계 농가가 초심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열매를 거두리라 믿는다.

계열사의 나무가 튼튼해야

같은 구름인데 저녁 햇빛과 함께 있으면 노을이 된다. 잘 흐르던 시내가 벼랑을 만나면 폭포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름은 그 놓인 자리 때문에 생긴다. 나보다 나은 친구를 만나면 내 값이 그 만큼 올라가고 나만 못한 사람을 벗 삼으면 내 값도 그만큼 내려간다. 나는 응장한 폭포가 될지? 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될지? 그도 아니면

하수물을 쏟아내는 시궁창이 될지?

이 땅에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지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우리 사육농가는 튼튼한 계열사를 만나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야 하고 소문을 듣기 위해 귀는 당나귀 귀를 만들며, 좋은 벗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계열업체가 탄탄해 지기를 말 없이 기도하며, 애를 태우며 키운 내 닭의 출하 때가 다가오면 시세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파수꾼이 되었다.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엄청난 소비 부진으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곡물·사료가 폭등으로 노심초사 하는 계열업체의 깊은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확보하고 있는 육계 농가 숫자를 따져 기업의 이미지를 알려야 하겠는가? 이제라도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 데다 닭고기 제품도 1,500여개나 된다고 한다. 또 일년에 새로운 제품이 200여개씩 개발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로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계절적인 수요에 안주하지 말고 많은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평생 즐길 수 있는 닭고기 생산을 한다면 국제무대에 우뚝 서리라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FTA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이고 EU와도 협상 중에 있으니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중국과도 조만간 FTA 협상이 시작될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산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계열업체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세계무대로 뻗어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

맺음 말

지식기반사회가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육계산업도 창의적인 지식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을 계열업체가 받아들여서 합당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닭고기는 건강을 지키는 근원이다.’ 국민 모두가 스마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며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똑똑한 바보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개인 이기주의와 지역간의 갈등도 뿐만 내릴 수 없는 다문화, 가족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업계 발전 추진 정책방향이라는 흐름이라면 회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발맞춰 가야 한다.

새해에는 양계협회 중심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새해에는 업계 경제의 활성화로 전국 양계인 대회에는 축제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홍보도 아울러 되기를 바란다. 특히 각 방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계 포럼을 통해 앞으로 빠른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 발전하는 양계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느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좋은 점 때문에 부족한 점을 덮고 만다. 사람도 그렇다. 다정한 사람은 절제가 없고, 고지식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돈 많은 사람은 베풀 줄을 모른다. 우리업계만은 나무, 잎, 꽃, 열매 모두가 좋은 것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양계**